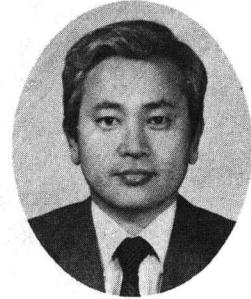


* 다음 2 편의 글은 지난 9월14, 15일 이틀동안 열린 「병원발전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중앙대 의대의 |제1회|임상교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대학병원의 발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두분 교수께 집필을 부탁했다. <편집자>

대학병원의 교수연구 및 학생 임상교육 개선방안



이 은 우
(중앙의대 정형외과 교수)

1. 교수연구의 개선방안

서구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온 이상 의학분야에 관한 전적으로 미국 또는 구라파의 영향을 받아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년전에 동경대학을 방문했을 때 당시 이 대학의 정형외과 과장 津山直一 교수는 일본 동경남쪽 지방의 많은 병원, 연구소들을 돌아보고 온 나에게 『그동안 일본의학에 대하여 느낀 점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때 필자는 일본의 각 대학의 연구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가는데 마다 「나의 방법」 「나의 고안」 등등 「나의 것」을 저마다 내세우는 것이 특이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하여 그는 간략하게, 그것은 단지 구라파 의학에 아주 작은 또는 적은 변화를 준, 엄격히 말해서 모두 모방일 뿐이라 하였다. 또 그는 아울러 일본 의학의 후진성은 불행하게도 미국과 구라파 즉 화란의 의학이 거의 동시에 일본에 들어 왔는데 일본의 문호 개방시에 선택된 것이 구라파 의학이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돌아보면 일제치하에 일본과 같은 영향하에 있다가 독립하면서 미국 일변도의 의학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떠한 것이 더 좋고 나쁘다는 것을 가리자는 것보다 현재의 우리의학은 지나친 물량위주의 미국의학에 깊이 기울어져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방대한 자금과 자료, 엄청난 기자재를 동원하여 추구하고 적용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해 나가는 식의 연구방법이 반드시 우리 실정에 맞아 들어간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하간 현재 국가 전체가, 전세계가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때 자연과학에 속해있는 의학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개방정책이 필요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의학은 다른 분야보다는 다행히도 선각자들이 많아 일찍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호언하는 것을 듣기도 하나 연구분야를 돌아보면 실로 부끄러워지는 것을 누구나 느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학분야에서 수많은 논문이, 박사학위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말로 이렇다하게 내세울만한 논문은 겨우 몇 손가락안에 들어 온다는 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무엇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더 일제의 잔재인 박사학위를 임상에서는 없애고 미국을 본떠나가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지금 박사학위를 임상에서 없앨 것인가, 존속시킬 것인가 그 찬반을 논하거나 그 병폐와 이로운 등에 대해서 가타 부타하고 싶지는 않으나 임상이건 기초건 그래도 몇편의 논문이라도 그 병폐를 딛고 나온 것임을 또한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임을 밝혀 둘 수밖에 없다.

박사학위가 필요없다면 기초고 임상이고 필요가 없

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 연구라는 면만을 생각해 보아도 의학 자체가 응용과학임을 분명히 하면 연구의 방향은 자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임상에 연구소 연구실이 없고 기초만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은 보지를 못했다. 근본적으로 의학의 연구는 임상적응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면 임상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의문점, 새로운 고안, 아이디어 또는 절대적인 필요에서 연구의 주제가 결정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시작되고 이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기초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나라 각 교실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서로 연관이 없는 논문이 대부분이란 점이다. 오히려 유사한 제목으로 계속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경향까지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연구비 제출서류까지도 대부분 1년 단위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구는 계속해서 깊이 추구해 나가는데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 이런 점은 지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에 관한 문제점, 영리를 앞세우는 경향이 많은 현상태에서 다소 이상론에 흐르는 점이 없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적은 연구 기금과 기자재 부족 등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해 연구의 질을 높여나갈 수밖에 없겠다.

작은 단위지만 각 대학내에서 만이라도 공동연구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선진 의학에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리라고 본다.

한가지 더 추가해야 할 것은 철학적인 의식의 국제화 뿐만아니라 과학적인 의식의 국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컴퓨터를 절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으면서도 이를 적용하는데 구시대적인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통계적 처리를 잘못된 임상분석이라든지 침술의 과학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침술의 작용기전 등 근본적인 것을 제쳐놓고 어떤 병에 어떤 침을 놓아야 한다는 등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소위 컴퓨터 게임식의 과학화를 경이롭게 생각하는 의식구조부터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개방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최단시간에 차이를 줄여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은 연구기금과 기자재의 집중화로 보다 깊고 장기적인 연구를 창출해 내도록 할 것이다.

셋째, 의식의 과학화와 함께 컴퓨터 등 실제적인 과학화에 과감히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각 교실은 비교적 일관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도록 애써야 할 것이며 대학은 이를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2. 학생 임상교육의 개선방안

학생 임상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시설과 인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실제적인 문제보다도 이 기회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한가지 지적하면 의학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교직원 및 의학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말로는 임상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임상교육의 충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거나 심지어는 임상교육 자체는 경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실, 즉 임상실습성적은 의과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 성적에 별로 반영이 안되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다든지, 임상실습은 객관화시킬 수 없어 충실을 기할 수도 없고 평가도 어렵다는 식의 방어적 사고가 의외로 널리 퍼져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선 임상실습 자체의 평균화와 객관화 작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학생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과에 나가서 실습을 해야 한다는 식의 시간표를 지양하고 실습시간표를 아주 세분화하고, 이를 각과에서 다시 더 세분화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과에서 시간대로 나뉘어진 실습지침서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족한 시설, 임상례, 교수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서는 시청각교육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이를 활용하도록 각과에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문의 시험제도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의 시험에서 실기를 중시하고 객관